

경과함에 따른 나뭇잎의 변색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식도 출원됐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식품의 포장용기에 부착돼 소비자가 직접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pH, 온도, 민감성물질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됐다”면서 “앞으로는 저렴한 간편한 일회용 전자코, 광화학센서, 광바이오센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 다양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신선도 표시라벨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존에 잘 알려진 식품 신선도 측정 방법은 경도, 탄력성 등 이학적 검사, 세균학적 검사, 수소이온농도(pH) 측정,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 아민류 분석 등이 있으나 사람의 후각과 미각에 의존하거나 실험방법이 복잡해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결과**  
 허위표시 등 1백38개 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백㎡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지도 및 홍보 위주로 하되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는 단속을 했으며, 1백㎡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농관원은 식약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음식

점 원산지표시관리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찰구역 내 단속기관별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등을 조율하고 협의함으로써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및 홍보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대부분의 음식점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14만1천5백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였으며, 허위표시 1백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 : 28건 ▲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 47건 ▲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국가명을 허위표시 : 12건 ▲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 : 13건 ▲ 국내산 젓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 : 2건 등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며 “표시가 미흡한 1백㎡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해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 원자재값 3차례 폭등, 채산성악화 심각

### 인상분 납품가 반영 어려워

금속캔을 생산하는 제관업계가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폭등과 수요감소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금속캔의 소재로 사용되는 석도강판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2월과 5월, 7월 3차례에 걸쳐 40%이상 올랐으나 납품가격은 절반수준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캔 수요도 줄어 평균 가동률이 60%를 밑돌고 있으며 전체 판매량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에 따르면 납품가격의 경우, 2월과 5월 인상된 원자재가격에 대한 납품가 반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난 7월 1일부로 톤당 18~20만원이 추가 인상되고 여기에다 잉크 등 부자재와 물류비까지 20% 이상이 올라 제관업체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까지 몰리는 상황이 됐다.

특히, 국내 금속캔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는 음료캔은 5월에 인상된 원자재가격(톤당 17만원)도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관업계가 원자재 메이커와 금속캔을 사용하는 원청업체 사이에 끼어 고전을 겪는 이유는 대기업 구매업체와의 종속적인 납품구조로 인해 납품가격은 일방적으로 캔 구매업체에 끌려 갈 수밖에 없어 원.부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관업계는 현재와 같은 종속적인 납품구조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한 공장가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장 가동”이라며 “원자재 메이커나 대기업 납품업체의 배려가 없는 한 중소제관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인해 더 물러날 수도 없는 존폐위기에 몰리게 됐다”면서 납품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관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제관조합 이철순 이사장은 제관업계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조합원사 전체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단가 현실화가 지연될시 “현재와 같은 원자재 및 납품가격 구조에서는 적자폭이 갈수록 심화되어 60여 제관업체는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 사장은 “원자재 파동시마다 재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개별 중소기업이 거래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약 60여개 제관사들이 있으며 원자재인 석도강판이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0%선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한국공업포장협회

## 창립5주년 행사

### 공정거래 선언문 선포

(사)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임경빈)가 지난달 22일 용산 파크컨벤션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회원 회원증 수여와 “공업포장업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선언문” 선포, 고정기법 개선사례 심사결과 발표, 아시아 통일규격 제정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회원사들은 수출포장공업 발전과 수출품 품질향상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41개 회원사가 서명해 선언문을 선포했다.

임경빈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포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한중일 3국 포장기술 교류, 과당경쟁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창립 5주년을 축하했다.



▲ (사)한국공업포장협회 창립5주년 행사

한국이앤엑스

## 제16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개최

### 이번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려

빠르게 변화하는 인쇄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제16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KIPES 2008이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1978년을 첫 회로 지난 30년간 국내와 해외 인쇄산업과의 가교역할을 해온 KIPES 전시회는 초창기의 해외제품위주의 전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에서 이제는 해외의 최신제품들과 함께 국내의 많은 인쇄관련 제품을 세계에 소개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금년 전시회에서도 국내외 25개국에서 출품한 3백57개의 제조사들이 자사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18,045m<sup>2</sup> 규모의 전시장에서 선보임으로써 최신의 인쇄기술을 주도하며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PES 전시회에서는 인쇄라는 광범위한 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세분화된 관련산업 출품사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전시효과를 높이고자, 프레스 및 프리프레스관, 디지털인쇄관, 지가공, 포장 및 제책관 그리고 라벨, 스크린 및 특수인쇄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특히 지난 5월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drupa 전시회에서 보았듯이 인쇄관련 장비들의 디지털로의 변환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장비뿐만이 아니라 인쇄방식에 있어서도 WTP (Web-to-print), 주문형인쇄(on-demand printing), 색상교정 (color management) 및 인쇄공정관리 solution 등 여러 변화들과 함께 진화해 가고 있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디지털인쇄기기 뿐만 아니라 인쇄관련 후가공기계 등 모든 관련품목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을 방영하듯 금년 KIPES는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업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 한국이앤엑스 제16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간담회 개최

KIPES 2008 전시 기간 중에는 약 30여회 이상의 인쇄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30주년을 맞이해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인쇄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인쇄출판 환경의 표준화를 위한 솔루션관련 세미나, RFID 관련세미나, 라벨

**유관단체**

인쇄 관련세미나, 친환경적인 인쇄를 위한 세미나 외에 출판사들의 자사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 등 다수의 세미나가 진행된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이 진행할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최신의 정보와 함께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시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셔틀버스 서비스를 서울역과 용산역, 합정역, 전시장 인근의 3호선 대화역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장을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9월 25일, 26일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KINTEX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인쇄출판도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첨단인쇄시설을 확인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KIPES 출판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문객 사전 상담예약을 포함하여 참관시 편리한 등록을 도와주는 참관객 사전등록시스템,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 및 교통안내 등 여러 편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KIPES 홈페이지 [www.kipes.com](http://www.kipes.com)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국제전시협회인 UFI와 국내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국제적인 전시회로써 KIPES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인쇄전시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번 전시회에 세계 각국의 인쇄관련 단체장, 언론인 그리고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국내관련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KIPES 2008은 급변하는 인쇄환경에서 인쇄관련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지난 달 13일 열린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인쇄인들의 축제이자, 인쇄인들이 원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향후 해외 홍보에 주력하는 등 전시회 위상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KIPES홈페이지에서 9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주최측인 한국이앤엑스 KIPES 2008 사무국(전화(02)551-0102)이나 홈페이지([www.kipes.com](http://www.kipes.com))를 이용하면 된다.

<b>한국생산기술연구원</b>	<b>패키징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창립 총회</b>
------------------	-----------------------------

### 경기도를 글로벌 패키징 산업의 메카로

경기도를 글로벌 패키징 산업 8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토털 패키징 솔루션 허브 구축이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에 패키징 산업이 지정되어 경기도 서부벨트를 잇는 패키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P-IICC)의 창립총회가 8월 20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됐다.

패키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P-IICC)는 부천, 시흥, 안산, 화성 등 4개시에 소재한 50개사의 패키징 기업의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와 임원회를 비롯해 패키징 컴포넌트 분과위원회, 패키징 시스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단 등을 두고 있다. P-IICC는 앞으로 사안별 테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해 운영하는 등 기술분야별 실태조사, 토털 솔루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패키징 허브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기업친화적 정책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IICC의 초대 회장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일신화학의 임동욱 회장이 추대되어 앞으로 P-IICC의 계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욱 회장은 P-IICC의 창립총회에서 회장 수락연설을 통해 “최근 들어 패키징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물류 효율화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패키징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패키징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시스템 통합형, 융합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회장은 P-IICC가 수행해 나갈 임무로 패키징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간협의회 정책의 장이 되어 경기도에 전달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며, 첨단 패키징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패키징 업계간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 아이템의 선정 등 미래 패키징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배성렬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클러스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창립 총회

협의회 프로그램은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형태로 산업계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패키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P-IICC)가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명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패키징 기술의 메카로 세계적 패키징 기술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P-IICC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의 그동안의 추진경과 보고 및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의 김동현 박사는 P-IICC의 비전과 목표를 2015년 패키징 산업 글로벌 8강을 위한 토털 패키징 솔루션 허브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P-IICC는 패키징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내 부천, 시흥, 안산, 화성 등 4개 시의 기업,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며, 토털 패키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중심의 성과지향성 정책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업위주의 탄력적 분과 및 TFT 활동을 통한 효율성 제고, 패키징 요소분야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수익모델확보를 통한 자생적 운영기반 구축 등 4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P-IICC는 경기도에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08. 6에 패키징 분야가 지정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에 지능형메카트로닉스, 반도체모바일산업 등 8개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내로 1개 산업을 추가로 선정해 총 9개 산업에 대해 지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IICC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과 배영철 주무관은 “지난 6월 3일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며, “5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P-IICC를 통해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 가길 바라며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향후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b>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패키징 교육 실시</b>
-------------------------	-----------------------------

### 패키징 개론 및 패키징 재료 교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계민)가 이번 달 18~19일, 25~26일에 걸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패키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의 1차 시범교육에 이어 열리는 2차 시범교육으로 한양대학교 학연산클러스터 302호, 305호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 마찬가지로 패키징 개론, 패키징 재료(이상 초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패키징 교육 2차 교육 내용

구 분	9/18(목)		9/19(금)	9/25(목)		9/26(금)				
	생활용품 패키징	패키징개론	생활용품 패키징	식품 패키징	패키징 재료	식품 패키징	패키징 재료			
09:00~	라미네이트	패키징일반	생활용품 패키징일반	식품패키징 재료 및 선정조건	제지 재료	Innovation Packaging	플라스틱 재료			
10:00~								목재 재료	골판지 재료	
11:00~					점심	점심	점심			
12: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00~	생활용품 패키징	패키징공정	제조공정	유통기한	금속 재료		유리 재료			
14:00~								점심	점심	점심
15:00~										
16:00~										

과정), 식품 패키징, 생활용품 패키징(이상 중급과정)의 4과정이다.

세부일정은 이번 달 5일까지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opack.re.kr)에 공지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 기간은 이번 달 8일에서 12일까지이다.

한국수입업협회

수입원자재 가격지수 11개월만에 하락세

유가 및 농산물 하락 영향

한국수입업협회(대표이사 권순한)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11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13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7월 코이마지수는 453.54 포인트를 기록해 6월의 453.55 포인트보다 0.01 포인트가 감소했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의 원자재 수입가격을 기준치 1백으로 놓고 매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7월 원자재 수입가격은 작황 상태가 양호해 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산물이 6.49% 감소했으며 여름철 비수기로 수요가 감소한 유화 원료와 유무기 원료가 각각 2.16%와 1.15% 줄었다. 반면 공급 차질 우려로 광산품과 비철금속은 0.69%와 0.32%가 올랐다. 6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슬래브로 24.39% 오른 가운데 납이 4.26%, 에틸렌글리콜이 2.71%, 알루미늄이 2.1% 순이었다.

수입업협회 관계자는 "유가와 농산물의 하락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춰섰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은 8월에도 계속되는 유가 하락과 여름철 비수기 수요 감소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